

전여대협 일꾼 수련회 토론서

전여대협 일꾼 수련회

여학생운동의 전망과 진로를 확인하는 가슴벅찬 자리.

이중, 삼중의 부담속에서 어렵고 외롭다는 여학생운동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뜨거운 동지애로 가슴으로 부대끼며 어울어질수 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련회의 의의

1. 96년 투쟁의 과정속에서 달려왔던 여학생운동을 총화하는 상반기 총화의 장이며 이후 전망에 대한 결의를 밝히는 장이 될것입니다.

96년 한해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개강사업과 여학생운동의 전망을 내오는 총회가 채 마무리되기 전에 노수석열사의 타살등 이어지는 열사 투쟁과 교육재정확보, 대선자금공개를 요구하는 투쟁, 이속에서 여성유린의 역사, 민족 자주권 유린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정신대 문제 완전 해결 투쟁을 힘있게 벌여냈습니다. 이과정에서 여학간부들의 혼신적인 투쟁속에 많은 모범들을 많들어내기도 하였고 조금더 치열하게 고민했더라면 하는 안쉬움도 한켠에는 남을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상반기 동안의 총화를 내실있게 모아내며 이후 여학생운동의 전망을 밝혀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2. 여학생운동을 책임지고 나가고 있는 여학일꾼들의 대동단결, 단련의 장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활동하면서 학생회와의 관계, 간부들의 고민, 여학생회의 방향을 잡아내고 활동하는 속에서 고민들을 가지고 많은 밤을 세웠을 우리 여학일꾼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고민을 총화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속에서 여학일꾼으로서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장이며 하나의 모습으로 단결해들어가는 장이 될것입니다.

3. 8월 통일 투쟁을 결의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시대와 역사의 부름앞에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 우리 여학간부들로부터 통일 조국을 안아오기 위한 투쟁에 떨쳐 나서야 될 것입니다. 철의 전사 전여대협 통선대를 선봉으로 정신대 문제 완전 해결과 제2의 정신대를 막아내기 위해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실현하기 위한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투쟁을 중심으로 통일투쟁에 하나같이 일떠설 것을 결의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수련회의 목표

1. 지역에서부터 내실있는 상반기 총화로 여학간부의 모범발굴과 혁신의상을 잡아내고 여학일꾼으로서 자긍심을 드높이자.

지역에서부터 준비된 구체적인 사업과 간부의 활동 총화를 기반으로 여학간부의 이후 혁신의상을 밝혀내고 여학간부로서 자긍심을 말이 아닌 신심으로 받아안고 이후 구체적인 결의를 모아나가자.

2. 여학생운동의 현재적 진단과 당면 여학생운동의 과제, 발전전망에 대해 밝혀보자.

상반기 여학생운동을 전개하면서 나서는 어려움과 과제를 명확히 진단하고 변혁운동속에서 여학생운동의 올바른 자리매김과 발전 전망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단순히 몇몇의 고민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닐 것이며 단위에서 기간의 고민을 치열하게 총화하고 준비하여야 만이 여학생

운동의 질적 도약을 내울수 있을 것이다.

3. 조국통일투쟁에 대한 드높은 결의를 모아내고 이후 사업과 투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자.

상반기 동안 진행했던 정신대 투쟁의 성과를 명확히 집어내는 속에서 정신대 문제 완전해결과 제2의 정신대 문제를 막아내기 위한 한반도 평화정착 실현을 위한 투쟁등 당면 투쟁의 내용을 공유하고 철의 전사 전여대협 통일선봉대의 대중적인 결의를 모아나가자.

수련회의 내용적 기조

여학생회 간부들의 실천적인 모범과 성과를 중심으로 여학생일꾼의 자긍심을 드높이자

여학생운동을 전개하면서 나서는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여학생운동의 어훈적 토대를 세워내자.

지역간의 여학생운동의 차이를 극복하고 지역에서부터의 철저한 준비로 수련회의 성과를 배치하자.

내용

@ 상반기 총화

- 사상적 기조에 맞게 전개
- 조직적 운영과 간부사업에 대한 총화
- 정신대 투쟁의 방향
- 대중운동의 내용과 형식
- 하반기 사업, 투쟁의 결의

@여학생운동의 내용과 과제

- 자주적 여학생운동에 대한 이해
- 조직운영과 간부사업
- 대중운동의 방향
- 부문계열운동에 대한 이해

@ 조국 통일 투쟁에 대한 결의

- 통일투쟁
- 전여대협 통선대 발대식